

제주사회복지신문



> 발행인: 이동한 > 편집인: 고경운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도 동광로 41 (이도1동 1245-14아남빌딩 6F)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전화: 064)702-3783 ~ 4 / 팩스: 064)702-3383 > 편집디자인: 디자인열림

창간호

2007년 9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제주사회복지신문’ 제호
한글 선생 손수 씨 쥐



‘제 주
사 회 복
지 신문’
제 호 는
한 글 서
예 가 로

유명하신 한글 현병찬(사진) 선생님이 손수 써 주셨습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글서예분과위원장과 제주도서예가협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한글 선생님은 대한민국 서예대전(미협) 대상과 원곡서예상 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 예술마을에서 ‘벽글이 있는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연중 다양한 붓글 씨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한글서예본.

지면소개

- 종합 2·3면
제주사회복지신문에 바란다
창간 축하메시지
- 사회복지소식 4·5면
자원봉사카드 발급 · 소식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 · 시론 · 기고
- 특집 7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특강



제주 사회복지인 한자리에

13일 학생문화원서 제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제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07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13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태환 도지사와 양대성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 단체 근무자 및 생활(이용)인,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리며, 1부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재즈댄스’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유공자 30여명과 우수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진다. ★수상자 명단 2면

2부는 2007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로 진행된다. 정혜재활원과 성이시돌요양원 등 12개팀이 나서 발레와 댄스, 난타 등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5개 유소년 축구팀과 축구단 참여 아동센터 아동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Happy Dream-Kick 축구대회가 열린다.

SK에너지(주)의 후원으로 열리는 축구대회는 ‘꿈 이루기 성장프로그램’ 테마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소년 축구팀들의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각 팀별로 2경기를 치른 뒤 결승 진출팀을 가리고 결승전을 치른다. 또 유소년 축구팀에 새로 가입하는 3개 팀 창단식과 축구 꿈나무 육성 장학금 전달식, 응원단 레크리에이션, 3인 4각 달리기 등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는 제주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2007 사회복지 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전문위원회가 연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지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창간사



이 동 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지향, 평화의 섬 지정, 화산섬 풍광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새로운 변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의 역량에 따라 동북아의 중심축에서 역동적인 웅비의 나래를 막 피려 좋은 기회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적 변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역량의 결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의 제고, 실천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신과 자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사회복지신문을 창간하게 됐습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의 탄생은 제주도 사회복지발전사의 큰 역사적 기점이며, 사회복지인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의 후미진 곳을 밝게 비추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을 알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우리 협의회의 정체성에 걸맞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큰 뜻을 품고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은 제주사회복지신문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7년 9월 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 일동

생생한 뉴스
다양한 정보
복지타임즈
www.bokjitime.com

사회복지 포털
B복지넷
www.bokji.net

사랑의 식품나눔
푸드뱅크
FOOD BANK
foodbank1377.org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하는...
재생명지원센터
kids119.or.kr

사회복지시설 업무관리
국가복지정보시스템
w4c.go.kr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복지시설평가
pyongga.bokji.net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VMS
vms.or.kr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한국사회복지회관 대관
rent.kncsw.or.kr

사회공헌 네트워크 허브
사회공헌정보센터
Community Relations Center

제주사회복지신문에 바란다

봉사자에 자긍심 심어주길

기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데 익숙해진 상황에서 제주 지역의 사회복지소식을 전달할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창간된다는 소식은 신선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간지와 방송, 인터넷신문 등 언론매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여러가지 정보 중에서 사회복지현장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매체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받는 정보 역시 언론매체의 시각에서만 한정된 것으로서 사회복지현장 곳곳의 생생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간하는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제주지역 사회복지계의 생동감 있는 움직임과 생생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사회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제주사회복지신문'을 통해 도민들이 좀 더 쉽게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김 성 호
온누리봉사회

사회복지문제 논의의 장 기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 종이신문의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사회에서 언론이 가진 기능과 역할이 워낙 크다보니 일상 생활 속에서 신문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는데 익숙해졌지만 사회에 관한 소식만 작은 신문을 통해서 접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담아낼 '제주사회복지신문'을 창간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장에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얻는데 큰 어려움이 있더라 신문 창간에 기대가 크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신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인 객관적이고 올바른 사실전달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론화시키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문 창간을 축하하며 발전을 기원한다.



전 학 봉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

사명감 갖고 대안 모색해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활성화는 모든 도민의 바람이다. 지역 실정과 환경에 알맞은 복지사회 발전을 앞당길 비전제시가 구체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현재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자활 등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제주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 파스한 미담과 같은 현장의 소리나 이야기를 생생하게 소개함으로써 도민의 삶과 관련된 건강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제주지역 사회복지의 단순히 소식을 전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회복지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룬다는 사명감을 안고 발행되었으면 한다.

유익한 사회복지정보 및 동향, 사회복지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과 더불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신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는 신문, 새로운 기획으로 도전과 자극을 주는 신문이 되기를 기원한다.



최 영 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원장

진정한 사회복지현장 기원

빈곤의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 사회복지기관 뿐 아니라 유관 기관에서도 사회복지 실현을 말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대처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사회복지 종사자들간의 결집력, 사회전반의 이슈에 관한 정보력 등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을 사회복지신문을 통해 기대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이미 자신의 가족이 되어버린 수혜자들과, 또한 앞으로 함께 할 더 많은 예비 수혜자들을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혼자만의 고민과 노력으로 작은 것들을 수행해야 하는 종사자 입장에서 사회복지신문을 통해 더 큰 것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또한 우리의 열정이 담아지는 사회복지신문이 사회를 향한 진정한 사회복지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신 현 학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장

사회복지 유공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종기(서귀포시 강정동) △문부자(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오승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 △김지은(한림소망의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순희(제주정신요양원) △신현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오동철(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122전투경찰대 △이경아(제주장애인요양원) △강승희(아동보호전문기관) △송매옥(평안전문요양원) △강은희(청암재활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 △진군희(제주요양원) △장월선(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김순희(제일지역아동센터) △금강축산유통 △양창성(함덕중학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공로상 △고관용(제주한라대학)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봉사상 △마금숙(좋은인연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박윤희(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이혜경(성안노인복지센터) △송월화(좋은인연봉사회) △박진영(작은세상봉사단)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

제주도문화정보접자도서관(관장 김세희)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명함을 접자도서관에 제출하면 기관명과 직위, 이름, 전화번호 등을 무료로 점역 인쇄해준다. 수량은 제한이 없다.

접자도서관은 조그만 관심에 불과한 점자명함이지만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제주지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Congratulations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 축하메시지

사회복지 대변인 역할 기대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유관기관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물론 도민에게 유익한 사회복지 관련 정보 및 사회복지 동향을 지면을 통하여 전하게 될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역량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제주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계 언론매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언론으로서 공명정대한 보도를 통하여 제주지역 사회복지 분야의 대변인의 역할 또한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축하의 글을 맺습니다.



한 동 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인정·사랑·감동 넘치는 신문 기원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모든 사회부분에 복지가 알려지고 살아야 발전해야 하고 공유하여 실천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바로 이때에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창간된다고 하니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복지 근무자들에게 유익한 사회복지 관련 각종 정보, 동향 등을 알리는 '전달자'의 역할만 아니라 제주도 나가는 전국 각지의 좋은 소식과 발전적 영향을 받을 고귀한 내용들을 모아다주는 촉매제로서 자국을 주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이 배달되는 곳마다 인정과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의 첫걸음에서 시작하여 계속 증면돼 월간지에서 주간지로 나가서 일간지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김 성 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협회장

사회복지 성장·발전 원동력 되길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양적 팽창을 사회복지의 질적 성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유익한 관련 정보와 동향을 접하는 일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그 동안 민간사회복지의 종합창구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에 창간되는 제주사회복지신문이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 속에서 사회복지 관련 각종 정보 및 동향 전달의 참된 매신자가 되고 더 나아가 제주 사회복지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 치 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제주지회장

사랑 공동체 밑거름 됐으면

제주사회복지신문의 창간호 발행을 제주 5만 장애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현안문제들에 냉철하지만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다가가 사회복지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사회복지계의 모순과 불합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루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사회복지인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변혁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지역의 사회복지를 도민 곁에 바르게 다가서도록 충고하고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회 전체가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밝고 인정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태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 형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장

사회복지계 진실한 목소리 담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은 다시 한 번 제주지역 사회복지를 한단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진심으로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창간은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사회복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유관기관들이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제주지역 사회복지계의 언론매체로서 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사회복지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길 바랍니다.



김 정 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장

복지수요자 목소리 알리는 공간돼야

제주의 사회복지를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지는 사회의 어두운 현장 속에서 깊이 침투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은 복지부흥시대에 부응하며, 더욱 더 많은 이들이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보다 공정하고 바른 목소리로 제주민의 특성에 걸맞는 사회복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또한 복지수요자들의 편에서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바른 잣대로 가늠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사회복지 전문기로서의 정확한 판단과 공정함, 도민과 모든 기관들, 사회복지사가 하나가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신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 준

한국아동복지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보육시설 23곳 '평가인증' 통과

총 70곳으로 늘어

제주도내 보육시설 23곳이 새롭게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평가인증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상황과 보육시설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4기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 가운데 23곳이 인증을 통과해 도내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70곳으로 늘었다.

이는 도내 전체 보육시설의 16.6%로, 전국 평균 11.4%에 비해 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육

시설의 환경 ▲아이 발달과정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여부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운영관리체계 ▲영양과 청결·위생관리 ▲부모와의 협력관계 등을 지표로 활용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번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는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1인당 연 50만원이 지원되며,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제주도는 평가인증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평가인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체전 108명 참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0일부터 5일간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선수단 및 임원 108명을 출전시킨다고 밝혔다.

참가 선수는 지체장애 41명, 시각장애 8명, 청각장애와 정신지체 각각 6명, 뇌성마비 5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2명이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전국 규모 대회 입상자와 지난해 메달 입상 선수 등을 우선 선발했다고 밝혔다.

내달 2일 '2007 노인일자리 박람회'

한라체육관 등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해 보람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달 2일 한라체육관과 유도회관에서 '2007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범도민적인 관심을 높여 도민의 행사로 치러진다.

올해에는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에서 60여개 업체가 참여해 85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다양한 직

종 개발과 구인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일자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주도는 민간부문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부터 사업장을 방문, 노인일자리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또 내실있는 박람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 남은 기간 민간업체의 참여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5년부터 개최된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는 1375명의 어르신이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거뒀다.

“장애아동과 공감대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

임상동작법 연수캠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임상동작법 트레이너 양성 집중교육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임상동작법은 1960년대 일본에서 창작된 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기법이다.

창암재활원은 한국임상동작학회와 함께 일본 코마자와여자대학 츠카고시 카츠야 교수와 세이난여자학원대학 이치노세 아리사 교수 등을 강사로 초청,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창암재활원에서 장애아동과 부모,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임상동작법 연수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심리적 재활 이론 등의 강의와 토론 ▲아동 한명을 트레이너 한명이 일대일로 훈련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 동작훈련실습 ▲아동의 집단적응과 사회적 적



응 등을 높이기 위해 집단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료관계를 탐색하는 집단요법실습이 진행됐다. 또 ▲집단생활 속에서 하루의 생활태도를 점검하고 아동의 바른 생활습관 획득에 대해 생각하는 생활지도실습 ▲보호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보호자상담실습도 마련됐다.

캠프 참가자들은 “장애아동

들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아이와 공감대를 나누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평생 누워만 있는 아이를 앉히고 일으켜 세우는 등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전환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광수 창암재활원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사회복지사와 장애아동 교육 관련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조순옥 명예기자〉

소/식/마/당

제1회 시각장애인 플라잉디스크대회



제주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8월 9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전도 시각장애인 플라잉디스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디스틴스경기와 아쿠라시경기로 나눠 조별로 치러졌다.

한편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인 시각장애인 플라잉디스크 프로그램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진재활센터 '2007 임해훈련' 실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인 유진재활센터는 8월 14일 금능해수욕장에서 시설 이용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임해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임해훈련에서는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풍선 터트리기, 파자 따먹기, 노래자랑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온누리봉사회 창립 15주년 단합대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온누리봉사회(회장 우선자)는 8월 11일 삼양초등학교에서 회원과 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5주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강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져 장소가 변경됐음에도 참석자들은 단체 율놀이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우의를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도예체험학교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정신지체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도예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도예체험학교는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도예 작업활동을 통해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명예기자

조순옥 · 이명자 · 현경애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 사회복지신문 창간에 즈음해 조순옥 · 이명자 · 현경애씨(사진 위부터)를 명예기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3명의 명예기자들은 각종 행사 소개와 시설 탐방 등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또한 제주사회복지신문의 최전방에서 현장 취재 활동을 벌이며 ‘풀뿌리 정보’의 자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활약상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jejubokji.net/4

jejubokji.net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Jeu Council on Social Welfare

협의회소개 | 협의회소식 | 자료실 | 게시판 | 제주복지망 | 푸드뱅크

일반자료실 / 협의회자료 / 기타자료실

제주도사회복지協 홈페이지 개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제주복지넷(www.jejubokji.net)’이 새롭게 단장된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와 도민들에게 최신 사회복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검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돌하르방과 한라산 등 제주 상징물로 바탕화면 플래쉬를 전면 교체하는 등 홈페이지 전체 디자인이 수정된다.

기존에 있던 봉사회 홈페이지·카페 배너 위치를 재구성하고, 후원신청과 자원봉사신청 등을 하나의 메뉴로 통합한다.

또 자원봉사자카드 신청과 법률 자료실을 추가하고 행사일정안내 기능을 신설한다.

기타 자료실 등 이용이 저조한 메뉴는 삭제할 예정이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오는 17일 선보인다.

〈현경애 명예기자〉

제1회 전국장애인 수영대회 열려

150여명 참가자용 겨뤄

제1회 제주평화배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 및 제3회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 바다수영대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수영연맹 주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8월 18~19일 이틀간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장애인(지체장애, 정신지체, 청각장애 등) 수영선수 15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첫날 참가선수들은 제주시실내수영장에서 남·여 자유형 50m, 배영 50m, 평영 50m, 접영 50m, 계영 200m 경기에서 자웅을 겨뤘다.

19일에는 이호해수욕장에서 바다수영을 하며 바다와 깊은 수심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했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수상 레저스포츠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은 관광과 스포츠 활동 여건이 최상인 제주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주가 장애인 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카드 하나로 자원봉사 혜택 'OK'

제주자원봉사자카드 발급



도내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카드가 발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순택)는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와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를 위해 8월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SK에너지(주), 분야별 자원봉사센터(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자원봉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제



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될 뿐만 아니라 OK캐쉬백 가맹점 할인, OK캐쉬백 포인트 적립, 제주유나이티드 FC 축구경기 할인, 월 1회 이상 문화행사 무료초청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자원봉사자카드 발급 기념으로 오는 11월까지 카드를 발급한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OK캐쉬백 1000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도 시행된다.

제주도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자원봉사시간 체크시스템을 도입해 봉사시간에 따른 차별적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명자 명예기자>

“복지마인드 품고 소명 성실히 수행할 것”

아라복지관 개관 15주년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이 8월 1일 개관 15주년을 맞아 7월 31일 아라복지관 앞마당에서 기념식을 비롯해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졌다.

주택관리공단 제주아라관리사무소와 아라복지관 자원봉사연합회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제주시장과 이동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주민들은 게이트볼

대회와 탁구대회, 노래자랑에 참가해 숨겨진 실력들을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어르신 20여명의 유년 시절부터 앞으로의 소망까지를 담은 자서전들을 선보인 ‘이렇게 살아와수다’ 전시회가 열렸다.

고두승 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한 이후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할 때도 있었으나 기쁨과 보람이 더 컸다”며 “미래지향적인 복지마인드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 주어진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즈댄스 프로그램 운영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재필)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매주 화·수·목요일

보은의집 · 실버하우스 효도관광 나들이

제주시 오라동주민자치센터 돌체우먼코러스와 제주자유여

재즈댄스 프로그램을 복지관내 강당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댄스를 통해 어린이들의 성격을 활달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인기를 얻고 있다.

행사는 지난 6월 15일 보은의집과 실버하우스 노인 30여명을 모시고 퍼시픽랜드와 해피타운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어르신 효도관광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하늘소풍 준비하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죽음을 두려움 없이 어린 시절 소풍갈 때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경)은 노인들이 긍정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늘소풍 준비하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8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문의=064-784-8182

차동업 신부 초청 특강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는 다음달 2일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부부·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차동업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초청, ‘가정의 평화와 기능강화를 위한 부부대화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차 신부는 가족간 대화의 필요성과 가족의 기능·역할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문의=064-712-1366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 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대림산업 저소득가정 ‘러브하우스’ 전도사

3년간 30가구 보금자리 업그레이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전문건설업체가 수년째 제주에서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대림산업(주)이 지난 2005년부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며 제주의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전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2005년 13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500여만원을 들여 낙후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혼자 사는 노인 가구 등 30가구의 주택을 수리해줬다.

보금자리 만들기에는 필요한 전문 장비와 주요 자재 등을 제공해 어린이를 위한 공부방을 조성하고 부엌 개량, 지붕 방수, 창틀 시공, 전기시설 교체, 도배, 화장실 개·보수 등을 통해 이들의 주택을 사랑의 공간인 ‘러브하우스’로 변모시킨 것이다.



대림산업은 또 ▲행복나눔 ▲소망나눔 ▲문화나눔 ▲사랑나눔 ▲맑은나눔의 ‘5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켜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알림/마당

■춤·동작 치료사 2급 양성과정

가족사랑센터는 한국 춤테라피학회와 함께 춤·동작 치료사 2급 양성과정을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 춤테라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018-629-1350

■“휠체어 농구단 선수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농구단 선수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064-756-4980

■활동보조지원 장애인·파트너 모집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활동보조지원이 필요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조할 파트너(만 18세 이상 50세 미만)를 모집 중이다.

문의=064-722-9990~2

■리더십 양성과정 개설·교육생 모집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장애인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사회 환경변화를 주도할 지도자를 육성·발굴하기 위한 ‘리더십 양성과정’을 개설, 교육생을 모집한다. 문의=064-702-0295~6

■주5일 봉사·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둘째·네째 토요일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5일 봉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064-751-5041

Column 칼럼

지역복지력 강화 '수눔음' 실천의제서 찾아야



김 순 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조선시대의 사창은 곡식을 매개로 공동저축과 자치적 운영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향약과 두레 등 상부상조활동이 있어 이 역시 민간에게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도에겐 이와 비견할 수 있는 민간복지망이 '수눔음'이라 할 수 있다.

수눔음은 공동체 삶의 방식으로 노동을 주고 받는 품앗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신은 공동선(共同善)이라 할 수 있다. 선조들은 노동능력이 없는 이웃들에게 대가 없는 노동과 음식, 거처를 제공하였으며 지금도 그 정신은 찾을 수 있다. 제주의 선조들은 척박한 환

경 속에서도 수눔음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유지시켜 왔다.

요즈음 사회복지계의 거시적 화두는 복지시장 도입 패러다임과 사회복지확충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담론이다.

세계화로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비생산적인 사회복지지출은 제품의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인데, 따라서 복지공급도 시장경쟁으로 상품가치를 정해야 하며 대상자가 누구든지 제공하는 복지의 양적 총량은 줄이는 대신 누구에게만 제공토록 질적 총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대상인 국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있음이 문제인데 교육투자, 직업고용과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투자, 여성과 양육투자 등 사회복지환경은 우리와 질적 수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뚜렷하여 인적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상황으로 사회복지 확충은 경제발전을 선순환케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

는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복지력(地域福祉力)은 개인의 자질과 잠재능력이 가족과 교육, 의료보건 등 사회적 환경에 의해 달라지며 지역 사회자원의 복지라는 목표를 공유하여 협력체계를 형성할 때 그 힘으로 지역의 사회발전총량을 좌우한다. 특히 장애인·실업자 등 사회적 위험에 1차적으로 노출된 계층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사회안전망 설치의 결과적으로 전체 주민의 공동체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복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제주도는 '수눔음'의 정신을 복지정책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다. 수눔음은 재정을 집중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도정은 예산부족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시민복지조직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수눔음의 실천의제를 찾아 지역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장의 복지종사자들도 제주도의 복지정책에 대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제언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복지력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전반의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독자의소리

일본 노인복지시설을 다녀와서

휴먼서비스를 지향하는 사회복지



김 희 경
동제주노인복지센터 소장

한국과 일본은 거리상의 근접성 외에도 문화, 역사상의 근접성이 높으므로 상호교류에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이 단종 복지관의 시설보호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종합복지관 형태의 이용시설이 더 보편적이므로 시설(기관) 운영의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

우리나라 종사자들은 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일본 사회복지자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의 종사자들은 여러 대상자에 대해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우리

나라 종합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연수에서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차별없이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물론 개호보험이라는 개보험 형태의 정책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있겠지만, 시설이 단순히 돈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층만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라도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좋았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장비(밝은 곳에 있는 물리치료실, 생활관 의시설 등), 밝고 쾌적한 분위기의 열려 있는 시설환경이 매우 보기 좋았으며, 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대상자 어르신들을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 역시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로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배란다의 턱을 없애고,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볼 때 가족과는 떨어져져 외진 곳에서 지내야 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참고해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물리적인 근접성을 두고 대상자의 경제적, 신체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해가는 면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금제도와 개호보험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재산이 많은 노령층을 겨냥한 고급 양로원 이외의 실비양로원 등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쟁력이 없는 시설은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선택이 지속되는 한 그 시설을 신뢰하고 맡기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도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인건비를 적게 주면 좋은 인재를 쓸 수 없다는 어느 시설장의 말이 낚가에 맴도는 이유는 왜 그럴까.

時論 시론

이웃 사랑은
'음식 나눔' 푸드뱅크로

한 영 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

입을 것, 먹을 것, 잠 잘 곳인 바로 의식주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1차적으로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먹을 것인 '식(食)'이 아닌가 한다.

'배고픈데 장사 없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배고픈 건 참을 수 없음을 뜻하고 있다. 그만큼 배고픔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삶의 여유는 그 이후이다. 경제적으로 의식주의 걱정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 비로소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순서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 한가지마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굶주림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그려지지 아니한가. 실의에 빠져 방황하는 노숙자들은 어떤가. 거동을 제대로 못하며 홀로 살아가는 노인, 장애인들 또한 어떤가.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무리 경제성장을 운운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한낱 '그림의 떡'에 불과할 따름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자 독식주의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세상은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법. 최근 곳곳에서는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연이어 용솟음 치고 있다.

착박한 사회가 아닌 정이 넘치는 사회로 돌려놓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상생의 다라들이 놓여지고 있다.

기금 지원에서부터 의류지원, 집지어주기 봉사 등. 최근에는 음식 나눠주기 사업들까지 활발하다. 먹거리를 통한 '나눔의 사랑'이 그 것이다.

IMF 이후 끼니마저 해결하기조차 힘든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료급식을 체계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결성된 '푸드뱅크' 네트워크 사업이다.

2006년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278개 조직이 있다. 중앙조직을 비롯해 16개 시·도에 있는 광역조직, 시·군 단위 261개 조직들이 있으며, 제주지역에는 1개 광역조직과 3개 기초단위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성, 음식 나눠주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업, 학교, 단체, 개인 등 각계각층에 맡긴 각종 음식류를 정성스럽게 다듬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아름다운 이웃사랑'이 제주사회를 더욱 더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푸드뱅크는 기탁한 식품을 단순히 나눠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기탁과 관련된 조사, 연구, 개발, 홍보, 교육을 비롯해 국제협력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관리에도 소홀함 없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제 도내 푸드뱅크 사업도 다른 복지사업들 못지 않게 하루하루 경륜을 쌓아 나가면서 많은 성과들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 축하와 함께 제주 복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가교역할이 돼주기를 바란다.

일본 사례 타산지석...체계적 연구 절실

한창완 교수, 노인복지 관련 특강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일본 후쿠오카 개호노인복지시설 2곳을 방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각종 서비스 내용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7월에는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한창완 교수를 초청,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한 교수의 특강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우송대학교 한창완 교수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일 본이 개호(介護)보험을 실시한 지 6년이 지나고 있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의 일환으로 개호보험을 실시했으나, 이것은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일본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호보험 실시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이며 '복지의 시장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 실시된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급주체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주식회사, 민간영리기업, 의료법인 등 다양한 사업주체에 의해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 그리고 서비스는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게 되며, 행정은 서비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체제로 변화됐다.

다양한 주체에 의한 서비스 공급은 공급주체간의 경쟁을 야기시켰으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개호보험은 사회복지분야에 '시장'을 형성시킨 것이다.

▲ 일본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실태와 문제점

개호보험은 공급주체가 다원

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체계가 조치에서 계약으로 바뀌었고, 서비스의 성격도 행정서비스에서 시장서비스로 바뀌었다.

이런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에 따라 의료법인도 대거 진출했다. 복지계서비스(방문개호와 통소개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인, 의료계서비스(방문간호와 통소재활)에서는 의료법인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이용수준은 기본적으로 종래 수준의 연장선상에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충량은 그다지 증대하지 않았다.

서비스 이용액이 전체 지급한도액의 4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율의 10% 이용률에 의한 자기부담의 확대라는 제도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수발을 가족에 의존하는 것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의 중대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영리기업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기반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日 개호보험 도입 후 공급체계변화로 서비스 질 저하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 대세...지속적 논의 필요

만 시장원리에 따라 언제라도 철수하는 영리기업에게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실제로는 오히려 불안정한 서비스 공급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의 다원화'를 도모하고자 한 개호보험에 대한 기본방침의 문제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비스 이용액제가 예상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개호보험의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다수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영리기업의 참여로 인해서 개호종사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내용

장기요양 대상자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 인정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 등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원,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조달된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이용자본인이 부담하며, 저소득층은 각각 50% 경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다.

▲ 복지시장화의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가 선진제국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큰 흐름이 돼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혁에 있어서 시장화가 개혁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각 영역의 과제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화가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선진제국의 행정개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New Public Management)라는 실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많은 선진제국은 행정에 민간기업의 경영수단을 도입해 행정부분의 효율화·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실시했다.

이러한 개혁의 기초가 되는

것이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라고 불리는 행정관리 실천 이데올로기다.

이런 방법에 의한 개혁은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활용, 조직·개인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시장원리에 종속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부정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로든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서비스 이용 기회격차의 확대, 서비스 질의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원리의 침투가 복지·의료·교육 등의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의 관계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행동원리에 변화를 가져와 서비스 실천을 지지하는 이념적 합의를 파괴하는 상황이 한정적인 범위이기는 하지만 이미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가 현실에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진전되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과 유사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의 경험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도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한창완 교수의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주 삼다수 택배상품

쿨릭 한번으로 아주저렴한 가격의 **제주 삼다수** 택배상품을 가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청정 제주 그대로 - **제주 삼다수** 택배상품

삼다수감귤쥬스 · 삼다수녹차 · 감귤초콜릿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종류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 URL : www.jpdc.co.kr
문의전화 : 064)752-2700 / 주문전화 : 1577-3545



뉴제주 운동

나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 집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
TEL 064-780-3300 FAX : 064-784-5020

